

物質特許施行후 2천件 出願 작년 11月末까지 國內企業 전체 5%

物質特許制度 施行이후 지난 해 11월말까지 出願된 物質特許는 모두 2천46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백1건을 국내 기업이 出願, 전체의 5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외국기업의 物質特許出願은 유럽이 8백53건으로 전체의 41.6%를 차지, 가장 많으며 美國이 5백67건으로 27.7%, 日本이 5백11건으로 25%를 점하고 있다.

그러나 국내 기업의 出願도 당초 예상보다는 많아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.

국내 기업과 研究所의 出願 현황은 다음과 같다.

△化學研=농약등 31건 △科
技院=고혈압치료제등 15건 △
력키=항균제등 7건 △第一製
糖=항생제등 6건 △柳韓洋行
=간장치료제등 5건 △鮮京=
감광제등 5건 △第一合織=사
진감광제등 4건 △코오롱=고
분자재료 4건 △이화산업=염
료화합물 3건 △京仁洋行=염
료화합물 2건 △東亞製藥=심
장치료제 2건 △綠十字=미생
물 1건 △永進藥品=미생물변
이주 △大熊製藥=항균제 △錦
湖石油化學=고분자 재료 △太

平洋化學=피부보호제 △농진
청=미생물 △味元=감미료 △
동양나이론=고분자 재료 △雙

龍洋灰=고분자 재료 △第一藥
品=항균제 △現代重工業=미
생물 △개인=세제등 5건

海外特許出願 간편화 豫備審査請求制度 마련으로

特許의 海外出願이 간편화될
전망이다.

12일 特許廳에 따르면 지난
해 6월 구성된 特許法改正作業
班은 종전 特許의 國際出願時
出願者가 해당 국가의 特許出
願節次에 따라 申請한 후 까다
로운 審査를 받아야 하는 번거
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特許法
일부를 改正, 出願節次를 다소

간편화한 試案을 마련중이다.

作業班이 마련하고 있는 試
案은 特許의 國際出願節次에 있
어 豫備審査請求制度를 마련,
出願者가 出願前에 세계 5개 지
역에 있는 國際豫備審査機關에
서 豫備審査를 받아 出願하고
자 하는 국가의 審査에서 탈락
하는 사례를 줄여주기 위한 것
이 주요내용으로 돼있다.

EC, 韓國產 위조상품 問題化 日本에 위조상품 輸出규제도 촉구

EC(유럽공동체)가 韓國產
위조상품을 문제삼고 있어 이
것이 앞으로 새로운 규제 수단
이 될것 같다.

구랍 30일 貿公에 따르면 EC
측은 최근 東京에서 日本측과
위조상품관련협의회를 갖는 자
리에서 韓國이 위조상품의 대
부분을 만들어 日本에 수출했

다면서 이의 규제를 日本측에
촉구한것으로 전해졌다.

EC측은 日本이 EC에 수출
하는 시계 가방 액세서리 등의
상당량이 韓國產 위조상품이라
고 지적하고 위조상품의 파기,
책임자처벌, 위조상품수입업자
의 명단파악등을 日本측에 요
구한것으로 알려졌다. (㉜)